澤火革(上澤下火)의 경제를 바라며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유병규

지난해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교수신문이 선정한 것은 상화하택(上火下澤)이다. 주역에 나오는 이 말은 원래 화택규(火澤睽)로 '위에는 불이요 아래는 연못'이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우리 지식인들의 이같은 선택은 2005년 한 해 동안에도 한국의 정치 사회가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속에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상화하택 현상은 국내 정치 사회 분야만큼이나 올 한해 우리 경제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핵심 단어라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선도 부문과 낙후 부문 사이의 경기 양극화 현상이 올해에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경제 부문별로는 수출과 내수,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또 한편으로는 IT와 비IT 산업간 성장 격차가 더욱 더 벌어졌다. 더 나아가 경제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동일 업종 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 규모별 경기 편차가 확대일로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필연적으로 상위 소득 계층에 대한 부의 편재 현상을 초래하여 정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경제는 위는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으나 아래로 갈수록 냉기가 심해져 경제 부문간이나 소득 계층별로 조화와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의 불균형 성장 현상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부문간, 업종간, 기업 규모별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데 있다. 우선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 현상이 국내 산업별 성장성을 결정짓고 있다. 그동안 세계 시장에서 뜨거운 경쟁을 해왔던 중화학 공업이나 IT와 같은 수출 산업 부문은 그간 확보한 경쟁력을 토대로 성장세가 높은 데 비해, 내수 시장이라

는 작은 연못에 안주해 있던 서비스업과 같은 내수 산업은 개방의 태풍을 몰고 오는 세계화 추세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성장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적응 정도에 따라 성장과 침체의 간격이 깊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급속히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섬유나 각종 생활용품과 같은 국내 경공업의 설 땅이 좁아지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부품 소재 산업 기반이 부실하다는 국내 산업 구조의 취약성도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내 제일의 주력 산업으로 부상한 IT 산업은 대부분의 부품과 소재를 외국에서 충당하고 있다. IT 산업이 성장하는만큼 그 과실이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외환 위기 후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국내 서비스업의 영세성이 더욱 악화된 것도 우리 경제가 '상화하택' 상태에 빠져드는 데 일조를 하였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자본에 가족 단위의 전근대적 경영을 하다보니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국내 경제의 부문별 성장 격차 현상이 대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볼 때 이를 단기간 내에 치유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새해에도 여전히 국내 경제의 부조화 현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경제가 조화로운 상생의 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上火下澤'이라는 '火澤睽'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에 상반되는 '上澤下火'의 '澤火革' 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은 불 위에 연못이 있는 형상으로 불의 열기로 전체를 뜨겁게 함으로써 새롭게 혁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국내 경제의 취약 부문을 치열한 경쟁과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강한 부문으로 변화시키는 데 온 지혜를 모으는 것이 병술년 한국 경제의 주요한 과제인 것이다.